

강경민 10골·7도움...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첫승 신고'

경남개발공사에 32-25 승리...원선필도 6골·2도움 맹활약 중상위권 도약 발판 마련...시즌 38골 강경민 득점 1위 질주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4경기만에 시즌 첫승을 신고했다. 에이스 강경민은 10골, 7도움으로 맹활약했고, 원선필도 6골, 2어시스트로 소중한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2일 충북 청주 올림피아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경남개발공사를 32-25로 물리쳤다. 최근 2연패했던 광주도시공사는 1승 1무 2패로 중·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경민은 이날 10골을 넣어 시즌 38골로 득점 1위에 올라 있고, 득점과 어시스트를 합친 공격 포인트 부문에서도 51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원선필은 이날 경기의 MVP로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 중반까지 경남개발공사와 8-8,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전반 18분께 광주도시공사에게 승부추가 기회를

다. 서아루의 도움을 받은 한승미가 속공으로 슛을 성공시켜 전세를 뒤집은 뒤 리드를 내주지 않고 18-13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들어서도 경남개발공사의 추격을 원천 차단하고 파상공세를 퍼부어 32-25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골키퍼 우하림의 세이브도 승리를 뒷받침했다. 우하림은 경남개발공사의 슈팅 38개 가운데 15개를 막아내는 활약을 펼쳤다.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며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오늘처럼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에서 자기 몫을 다해준다면 다음 경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4일 오후 3시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인천시청을 상대로 2승에 도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경남개발공사전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 3년 연속 '한라장사'

정읍 천하장사씨름대회 구례군청 이연우·엄하진 매화급·국화급에서 우승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26·영암군민속씨름단)이 3년 연속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한라급 정상에 올랐다.

구례군청 이연우와 엄하진은 각각 매화급과 국화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오창록은 지난 10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박정진(경기광주시청)을 3-0으로 제압했다.

2018년과 2019년 천하장사 대회 한라급 우승을 차지한 그는 올해도 최강자 자리를 지키며 개인 통산 6번째 장사 꽃가마를 탔다.

올해는 7월 단오 대회와 지난달 평창(4차) 대회에 이어 3관왕을 달성했다.

8강에서 이승욱(정읍시청)을, 4강에서 이호진(제주특별자치도청)을 꺾은 오창록은 결승에서 통산 두 번째 장사 타이틀에 도전한 박정진과 맞붙었다.

첫판 들배지기로 가볍게 기선제압에 나선 오창록은 두 번째 판 발다리에 이은 돌림배지기로 노련하게 박정진을 쓰러뜨렸고, 세 번째 판에서 밀어치기까지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12일 열린 같은 대회 여자부 매화급(60kg 이하) 경기에서는 이연우(구례군청)가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4번째 장사에 올랐고, 국화급(70kg 이하)에서는 엄하진(구례군청)이 올 시즌 2번째이자 통산 3번째 꽃가마를 탔다.

김다영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1부 무궁화장사(80kg 이하) 결정전(3전 2승제)에서 이다현에게 0-2로 패했다.

올해 설날·단오·추석·안산 대회에서 무궁화급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10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승을 차지하며 통산 4번째 장사에 올랐고, 국화급(70kg 이하)에서는 엄하진(구례군청)이 올 시즌 2번째이자 통산 3번째 꽃가마를 탔다.

김다영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1부 무궁화장사(80kg 이하) 결정전(3전 2승제)에서 이다현에게 0-2로 패했다.

올해 설날·단오·추석·안산 대회에서 무궁화급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달 여자 천하장사 타이틀까지 거머쥔 이다현은 이날 올 시즌 6번째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시즌 전관왕을 기록했다. 장사에 오른 건 개인 통산 9번째다.

4강에서 정수영(전라남도씨름협회)을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그는 김다영을 잡채기와 들배지기로 쓰러뜨려 우승을 확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프린, 알파인 스키 월드컵 대회전 4위...우승은 바시노

미케일라 시프린(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 시즌 첫 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시프린은 13일(한국시간) 프랑스 쿠세벨에서 열린 2020-2021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대회전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2분 20초 73을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우승은 2분 19초 03을 찍은 마르타 바시노(이탈리아)에게 돌아갔다.

알파인 스키 회전과 대회전 등 기술계 종목의 최강으로 꼽히는 시프린은 올해 2월 부친상을 당한 뒤 2019-2020 시즌을 그대로 마무리했고, 지난달 코스에 복귀했다.

핀란드에서 열린 월드컵 회전 경기에 두 차례 출전했던 시프린은 2위와 5위의 성적을 냈으며 이번 대회전에서는 4위로 들어왔다.

그의 최근 월드컵 우승은 올해 1월 불가리아 월드컵 슈퍼대회전이다.

시프린은 알파인 월드컵 통산 66승을 달성, 현역 선수 가운데 최다승 기록 보유자다.

알파인 월드컵 역대 최다승 기록은 86승의 잉에마르 스텐마크(스웨덴), 여자부 최다승 기록은 82승의 린지 본(미국)으로 이들은 모두 은퇴했다.

통산 승수 4위인 시프린이 1승을 더하면 현재 3위인 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의 67승과 동물이 된다. 바시노는 10월 오스트리아 월드컵 대회전 경기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지각 탓에 받은 2벌타의 '나비효과'

US여자오픈 출전 엔딩, 결국 2타 차로 컷 탈락

프로골퍼가 투어 대회, 그것도 메이저대회에서 출발 시기를 지키지 못해 벌타를 받고 그 여파로 컷 탈락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골프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엔딩(24)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9시 42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 사이프러스 크리크 코스 1번 홀에서 제75회 US여자오픈 1라운드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각을 하고 말았다.

티오프 때 늦으면 2벌타가 부과돼 그는 라운드를 시작하기도 전에 2타를 때안았다.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벌타를 받은 홀을 보기로 막은 엔딩은 1라운드를 3오버파 74타, 공동 75위로 마쳤다.

그는 다음 날인 11일 9시 42분 잭래빗 코스 10번 홀에서 시작한 2라운드에서 2타를 더 잃어 중간합계 5오버파 147타를 기록, 공동 81위에 그치며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컷 탈락 자체도 아쉽지만, 순위표를 살펴보면

엔딩엔겐이 결과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갈 법하다.

이번 대회에선 3오버파 145타, 공동 47위까지 컷을 통과했다. 엔딩이 2벌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안에 들 수 있었다.

엔딩은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해 6차례 톱10에 올랐고, 최근 발표된 세계랭킹에선 103위에 오른 선수다.

투어 경험이 적지 않은 그가 1라운드에 늦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골프닷컴은 코로나19 여파로 6월에서 12월로 미뤄진 올해 US여자오픈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때제는 "이번 US여자오픈은 일몰 전 경기를 완료하고자 2개의 코스로 나뉘어 열린다. 여기에 1번 홀과 10번 홀 출발도 구분된다 보니 오전 9시 42분에 4개의 다른 시작 지점이 있었다"면서 엔딩이 다른 지점으로 갔다가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늦게 도착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연합뉴스

KPGA 윈터투어 7년 만에 부활

내년 1~3월 군산에서 5개 대회 개최하기로

한국프로골프(KPGA) 윈터투어가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KPGA는 내년 1월 14~15일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전북 군산컨트리클럽에서 2021 윈터투어를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3월 12일까지 총 5개 대회가 이어지며, 상금은 각 대회 4천만 원씩 총 2억 원이다.

윈터투어는 2013~2014년 열려 선수들이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기량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 바 있다. 당시엔 모두 태국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이우진 KPGA 운영국장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전

지 훈련을 계획하지 않는 선수가 대부분이라 경기력과 실전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수들도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윈터투어는 KPGA 투어프로(정회원)는 물론 KPGA 프로(준회원)와 아마추어, KPGA 주관 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해외 국적 선수에게도 예선의 문이 열려있다.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의 예선에서 136명의 본선 출전자를 뽑는다.

본선은 36홀 스트로크 방식이며, 1라운드 이후 상위 60명만 최종 2라운드에 진출한다. 각 대회 우승자는 상금 800만원과 다음 대회 예선 면제 혜택을 받는다.

5개 대회가 모두 끝나면 매 대회 순위에 따라 부여되는 윈터투어 포인트를 합산해 상위 준회원 8명에 정회원 자격을 주고, 아마추어 상위 10위에 게는 프로 자격을 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도굴
3관	레벨 16, 스웨그, 잔칫날
4관	이웃사촌
5관	런
6관	조제
9관	조제
7관 씨네커툼	미드나이트 스카이 스카리와 친구들·로보시터의 비밀
8관 씨네커툼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더 프롬, 프리키 데스데이 순환상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초연 21회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 (목) ~ 27.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 (목) ~ 27.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 (금) ~ 20.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 (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